

사회

결손·소외가정 아동이 손쉬운 표적

성폭력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된다

치안 인프라 부족한 농촌·중소도시 빈번

한부모·조손가정 어린이 이웃 관심 절실

취약한 사회 안전망

사회적 취약계층 등 부모의 관심이 소홀한 아동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농촌지역 아동의 성범죄 노출 빈도가 높다. 범인들도 비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란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잇따르는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소외계층 아동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나주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 초등생 A(7)양 뿐만 아니라 언니와 동생도 항상 범죄의 위협에 노출돼 있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

던 아버지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잦았고, 어머니 또한 자녀를 제대로 살피기 어려웠다는 게 주변인들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A양의 큰 언니(12)가 혼자서 2살배기 동생과 다른 동생들을 돌보는 일이 많았다"라고 전했다.

지난 7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남 통영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의 피해 초등생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 친어머니의 얼굴을 모르는 것은 물론 아버지는 일을 하기 위해 집을 자주 비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때문에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해 마을 사람들에게 "배고프다"는 말을 자주 했을 정도로 외로운 아이였다.

이들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

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적고, 치안 인프라가 부실한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아이들이 성범죄 위험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 부모 가정 및 조손 가정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시·군에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4.4%가 응답한 반면 서울은 2.2%, 광역시 2.5%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과 중소도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조속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 성폭행범인 고종석(23) 역시 조두순, 김길래, 김수철 등 흉악범과 같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천적인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관계자는 "소외계층 아동들이 보호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감사 안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이웃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주 성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282명 가운데, 72%인 203명은 친구, 의류, 동네 사람, 친척 등 소외 피해자와 '아는 관계'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아동(13세 미만)·노인(61세 이상) 상대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09년 아동 82건, 노인 42건에서 지난 2010년 각각 96건, 62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92건, 29건에 달하는 등 끊이지 않고 있다.



전대병원 주재군 교수가 3일 입원 중인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 A(7)양의 현재 상태와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피해자 A양 불안·급성 스트레스

치료비 모금운동... 고종석 엄벌 촉구 서명도

나주 성폭행 피해 초등생 A(7)양은 극도의 정신적 불안 등을 포함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7)양을 치료중인 전남대병원은 3일 '나주 성폭행 피해 환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1차 수술 이후 경과를 살피고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치료를 병행중이며 재수술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의 주치의인 주재군(대장항문외과) 교수는 "그러나 회복부 봉합 부위가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곳이 때문에 감염 증세가 보이면 재수

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이어 "현재 A양은 정신적 불안 등을 포함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지만 경과에 따라 증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2차적인 정신적 피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 소아정신과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A양을 정밀검진한 결과 직장 근육 및 주위 괄약근층에 파열로 인한 봉합 소견이 있었지만 직장 점막을 포함한 직장파열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을 돌기 위한 치료비 모금운동과 범인 고종석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 A양은 영양식이나 의료용품 구입 등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1인당 지원금은 500만원 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 10만명을 목표로 진행 중인 성폭행범에 대한 엄벌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에는 3일 오후 7시 현재 3만5000여명이 서명했다.

광주선 고교생이 여중생 성폭행

"함께 놀자" 모델 유인... 북부경찰, 10대 둘 검거

나주에서 7세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사건으로 전국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고교생들이 여중생을 성폭행해 또 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3일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모델로 유인해 강제로 성폭

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등학생 박모(18)군과 정모(16)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박군 등은 지난 2일 오전 8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2학년생 A(15)양을 강간한 혐

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연락, '이야기하고 놀자'며 A양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고 완강하게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광지역의 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주말을 이용해 광주

에 와 모텔 방 2개를 잡고 A양과 친구를 불러 놀다가 친구가 돌아가자 혼자 남은 A양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오전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원스톱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치료와 조사 등을 거쳐 용의자를 추적, 이들이 버스터미널을 통해 영광으로 귀가하려던 것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반항에도 강제로 했다. 잘못했다"며 협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여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여고생 꼬드겨 원조교제

성관계 후 금목걸이 훔쳐

서부경찰, 20대 입건

원조교제를 한 여고생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3일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훔친 회사원 염

모(28)씨를 원조교제 및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염씨와 원조교제를 한 김모(17)양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께 완주군 한 모텔에서 고등학교 3학년 김양과 성관계를 맺는

등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원조교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염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서구 관천동 한 모텔에서 김양의 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염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김양에게 명품을 사주겠다고 접근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등골길 여고생 성폭행 미수

남원경찰은 3일 등교하는 여고생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미수)로 B(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남원시 월락동의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이 학교 학생 A(17)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종석 유치장에서는

낮잠·책 읽기로 소일... 태연자약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나주 성폭행범 고종석(23)은 다른 입감자들과 마찬가지로 낮잠을 자거나 책을 읽는 등 태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종석은 3일 혈액 채취 외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어 유치장에서 휴식을 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나주경찰서 형사들이 간호사와 함께 방문해 고종석의 팔에서 혈액을 채취했다. 고종석은 별다른 질문없이 협조했다. 경찰은 고의 혈액을 여죄 수사와 성범죄자 DNA 샘플 보관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는 4일 유치장에서 마지막 조사를 받은 뒤, 5일 경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지난 31일 경찰에 붙잡힌 그는 다음 날인 1일 새벽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고, 그동안 함께 입감된 3~4명과 함께 별다른 마찰없이 생활하고 있다.

그는 조사를 받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입감자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거나, 유치장 내에 비치된 책을 주로 읽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없이 지내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나 죽었어" 허위신고 입대 기피했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3일 자신이 숨진 것처럼 허위신고해 입대를 피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김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김씨는 지난 2008년 12월 입영 통지서를 받아 어머니 등과 공모해 자신이 심장질환으로 숨진 것처럼 허위 사망신고서와 증명서를 행정기관에 제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

○계엄중독과 인격장애 증세를 겪고 있는 김씨는 폭력성향으로 군복무 중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후 김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트레일러 대형 1,2종보통 2종소형(오토바이)

문자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트레일러 대형 1,2종보통 2종소형(오토바이)

문자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